

‘언어’와 분석 사이, ‘행위’하는 몸

이청준의 신체 모티프 작품을 중심으로

김우영(명지대)

목차

1. 들어가며
 2. ‘증상’이라는 몸의 ‘언어’와 그 사회적 맥락
 3. 분석가의 욕망과 ‘윤리적’ 증상
 4. 기피한 신체를 통한 ‘보여주기’와 담론의 무의미성
 5. 나오며
-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유신’ 시대를 포함, 언어가 제 기능을 못하던 한국 사회의 맥락 속에 서 이청준이 언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기제를 통해 고발 및 표현의 기능을 수행하게 했음을 확인하고자 했다. 푸코는 질병의 증상을 기표-기의를 언어적 관계로 해석하는 것이 ‘임상 의학’의 관점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청준은 이러한 근대적 규율화가 이루어진 틀 위에서 신체의 증상을 통해 역으로 억압된 정신과 사유를 드러내고 있다. 기피한 신체를 지닌 인물들과 특정한 증상을 호소하는 인물들을 통해 이청준은 현실을 재현하는 언어의 한계를 형상화하는 한편, 주체와 분절하며 새로운 틈새를 만드는 그로테스크한 신체의 자율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청준은 언어라는 현실상징체계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유희를 통제하려 했던 당대의 권력과 사회, 그리고 상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수행하고 있다.

주제어 : 이청준, 신체, 언어, 알레고리, 분절, 자율성, 임상의학, 유신

1. 들어가며

‘병원’이라는 특정 공간을 통해 신체에 가해지는 권력의 구조를 밝힌 사람은 푸코였다. 근대의 권력은 신체를 규율하며 신체를 정신과 함께 고양하고 관리해야할 대상으로 담론화하였다. 푸코의 ‘임상의학적’ 관점은 신체의 질병이 언어를 통해 재편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임상의학을 통해 신체의 증상을 기표-기어의 언어적 관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신체는 언어를 통해 공간화될 수 있으며, 이때 증상은 “질병이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고귀한 자리”¹로 의미화되어, 언어처럼 증상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보여진 존재”와 ‘말해진 존재’를 통하지 않고서는 질병의 속성이 진리 안에서 드러날 수가 없²게 된다. 신체는 스스로 존재하기보다는, 언어를 매개로 ‘투명하게’ 부각되는³ 대상이 되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역시 이런 맥락에서 임상의학적 관점과 공명한다. 분석가인 의사는 환자가 가진 질병의 증상과 환자와의 대화를 바탕으로 치료를 시도한다. 이때 치료의 성공 여부는 환자가 자신의 증상을 얼마나 언어화하는지, 의사가 그의 증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 같은 논의들은 이상 현상이나 질병의 증상 등을 포함하여 신체와 언어 사이의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신체는 기표들로 쓰여지며 그리하여 신체는 외래적이고 타자적이라는 관념을 예증”하며, “신체는 언어로 덧 쓰여지며, 덧 탑재된다”고 본 라캉의 논의⁴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언어화에 실패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언어화에 실패하고 ‘투명’하지 못한 채 남은 신체의 ‘잉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것을 단지 실패의 결과나 잔여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잉

1 미셸 푸코, 홍성민 역, 『임상의학의 탄생』, 이매진, 2006, 159면.

2 위의 책, 167면.

3 위의 책, 19면.

4 브루스 핑크, 이성민 역, 『라캉의 주체』, 도서출판b, 2010, 40면.

여'와 언어의 '사이'에 사실은 어떤 의미의 정수(精髓)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것이 본고가 가진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더욱이 한국의 작가들은 꽤 오랫동안 자유롭게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아래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언어의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성이 더욱 부각되던 시기에 작가가 하나의 출구로써 신체와 질병을 전략적으로 문제화했다면, 그 의미는 충분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언어의 가치와 가능성이 희미해진 자리에서 발화하는 신체가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바로 이청준(1939~2008)의 1960~1970년대 작품의 경우이다.

이청준이 질병을 가지거나 몸의 이상을 호소하는 인물들을 그의 작품 속에서 자주 다루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괴상한 신체 및 병에 걸린 신체를 가진 인물들을 다룬 작품들은 그 이전에도 많았기 때문에 그다지 새로운 것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한 연구가 한국 현대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매우 뚜렷한 특징으로 “질병 내지 병리성에 대한 친근성이 증대된 현상”을 지적했듯,⁵ 한국 현대소설에 등장하는 질병에 걸린 개인의 병든 육체가 사회적 병리 현상을 표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석적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또한 ‘폐병에 걸린 육체’가 시대의 은유로 한 시기의 특정한 상황과 인간형을 표현하던 특정 시기 역시 존재했으며, 이것은 전 지구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비유이다.⁶ 그러나 이들 연구들을 “질병의 비유화 현상”⁷이라고 칭하며 비판적으로 점검한 이재선의 언급에서처럼, 적지 않은 선행연구가 질병을 사회적 병리현상의 비유로 다소 단순하게 환원하여 해석한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⁸

5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 문학과지성사, 2007, 13면.

6 수전 손택, 이재원 역, 『은유로서의 질병』, 이후, 2002.

7 “문학, 특히 현대문학은 삶의 인간적 조건의 손상이나 사회적·정치적인 이상 현상의 비유나 상징으로서 질병을 원용하여 질병 현상을 문학화하거나 주제화한다. 말하자면 질병의 비유화 현상이다.” 이재선, 앞의 책, 14면.

8 이청준 작품 속 질병 관련 모티프에 대한 분석도 이러한 환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영한,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질병의 의미』, 연세대 석사논문, 2009; 김지혜, 『최인훈, 김승옥, 이청준 소설의 몸 인식과 서사 구조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10. 한순미의 『가(假)의 언어—이청준 문학 연구』(푸른사상, 2009)는 이러한 환원에서 벗어나 있으나, 그는 질병의

물론 신체의 증상으로 나타난 환자의 무의식을 분석가가 언어화한 후 이를 ‘카타르시스’를 통해 해소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로이트의 히스테리 분석⁹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신체의 질병과 주체의 관계를 해명할 여지를 열 수 있다. 이청준의 작품 또한 이러한 분석틀이 상당히 유효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히스테리 분석과 이청준의 작품이 갈라지는 지점 또한 존재한다. 이청준의 작품에서도 신체는 일차적으로 주체에 종속된 존재로서 해석을 요청하는 증상이 드러나는 장으로 기능하지만, 이청준은 완결되고 일의적인 해석이나 치료가 완료된 개인의 모습을 강조하지 않는다.

특히 본고에서 논의하는 작품들을 비롯하여 그가 작품 활동을 수행한 대부분의 시간동안 사회 구성원에게 ‘언어’는 완전한 자유의 형태로 주어지지 않았다. 즉 이청준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자유로운 발화를 막는 것은 인물 개인의 성향 때문이 아니라, 검열과 폭력에 대한 ‘(무)의식’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이청준 작품에 나타난 개인의 증상은 단지 특정한 개인의 성격이나 육체의 질병 그 자체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징후’로서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의미에서 독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청준 작품은 문제를 그 자체로 드러내기 보다는 문제의 핵심을 에워싼 메타적 서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 점에서 작품은 단일한 해석을 스스로 거부한다. 이청준 스스로도 “금지된 말의 바깥에 대해 말한다”라고 간단히 해명한 적이 있지만, ‘프레임’의 바깥을 논의함으로 그 내부를 드러내는 방식은¹⁰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가질 것이다. 한 선행 연구는 이를 두고 “이청준 소설 전체를 일종의 ‘대신 말하기’로 규정할 수도 있”다고 적절히 지적하기도 하였다.¹¹

또한 널리 알려져 있듯 이청준은 알레고리나 우화적 기법을 즐겨 사용하였

문제를 ‘소설쓰기’의 측면과 관련 지어 주로 논의한다는 점에서 본고와 방향이 다르다.

9 지그문트 프로이트, 김미리혜 역, 『히스테리 연구』, 열린책들, 2003 참조, 이 저서에서 프로이트가 ‘카타르시스’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고 한다.

10 이는 대상 a를 그것을 둘러싼 프레임을 통해 지적인 자크 알랭 밀러의 논의와 이를 지적인 지젝의 입장을 상기시킨다. 슬라보예 지젝, 김소영·유재희 역, 『삐딱하게 보기』, 시각과 언어, 1995, 191면 참조.

11 이수형, 『이청준과 교환의 서사』, 역락, 2013, 18면.

다. 발터 벤야민은 독일의 비애극을 분석하면서, 비애극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이 신체를 분절하고 토막난 부분들을 알레고리화하였다고 보았다. 이는 신체가 갖는 유기적 통일성을 절단한 후, 조각난 파편들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생산한 것이다.¹² 이청준 소설에 등장하는 신체 기관의 돌출과 그로 인한 그로테스크함은 육체 안의 유기성과 총체성이라는 기존의 자연화한 관념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인간의 신체를 정신으로부터 분리하고, 또 그 신체를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으로서 인지한다면, 신체의 각 부분은 통일된 정신으로부터 해방되어 각기 자율성을 지닐 수 있다. 나아가 이청준은 내적으로 숨겨져 있어야 할 외상들을 ‘외화(外化)시킴으로써’¹³ 자신의 주제의식을 더욱 강렬하게 표현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화나 우화적 상황을 등장시킨 작품들이 신체 자체를 부각하는데 그친다면, 이청준의 작품은 반드시 우화적 상황이나 알레고리를 ‘언어’와 연관하여 형상화한다. 이는 ‘분석가’에 준하는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것으로도 확인된다.

이청준은 복통, 딸꾹질, 신체기관의 훼손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을 통해 언어화될 수 없(못하)거나, 되기 이전에 있어 말할 수 없던 것들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존재 의의를 잃어버린 언어와 그런 상황을 낳은 사회를 동시에 비판한다. 신체는 언어처럼 작동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언어로서는 재현 불가능한 ‘날것’ 그대로의 어떤 것을 이미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청준의 작품에 등장하는 신체는 유기체와 기계 사이를 자유롭게 오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고는 질병, 신체 증상을 주요하게 다루는 이청준의 작품들을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청준의 등단작인 「퇴원」(『사상계』, 1965.12)을 비롯하여 「마기의 죽음」(『현대문학』, 1966.10), 「소문의 벽」(『문학과지성』, 1971 여름), 「배꼽을 주제로 한 變奏曲」(『신동아』, 1972.9),

12 발터 벤야민, 조만영 역, 『독일 비애극의 원천』, 새물결, 2008, 2부 「우의와 비애극」 참조.
13 증환이 네트워크의 사슬 속에 매어 있지 않으면서 향락이 직접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어떤 기표인 이상, 그것의 위상은 당연히 ‘정신신체적’이다. 다시 말해 그 무엇도 표상하지 않고 그 누구도 대표하지 않으면서 혐오스런 향락을 입증하는 무언의 보증서일 뿐인 무시무시한 신체적 흔적인 것이다. 슬라보예 지젝, 이수련 역,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3, 137면.

『빈방』(『문예중앙』, 1979 여름), 『치질과 자존심』(『치질과 자존심』, 문장, 1980), 『조만 득씨』(『세계의 문학』, 1980 겨울) 등이다.¹⁴

2. ‘증상’이라는 몸의 ‘언어’와 그 사회적 맥락

이청준의 등단작인 『퇴원』은 병원에 입원한 ‘나’가 주인공이다. ‘나’는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없는 환자로 등장한다. 물론 주치의인 친구 ‘준’은 ‘위궤양’으로 진단하지만, 정작 병원에 입원하자 위궤양의 확실한 증상인 복통마저도 사라져버린다. ‘나’는 자신의 병명도 환부도 알지 못하며, 자신의 증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런데도 ‘준’이 ‘나’를 위궤양 환자로 대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병원에서 ‘나’가 “이제 내게 위궤양은 없어진 것 같소. 아니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소. 그걸 몰랐으니 당신네들은 바보지 뭐요”¹⁵라고 말하자 병원의 윤간호사는 “위궤양이 싫으시담 더 멋진 병명을 붙여 드릴 수도 있을 것예요. 가령 자기망각증이라든가……”¹⁶라고 하면서, 육체적 질병이 아닌 심인성 질병을 제시하기도 한다.

푸코는 근대적 의학, 특히 임상의학의 탄생과정을 통해 육체의 질병이 ‘언어’를 통해 구조화되는 과정을 밝힌 바 있다. 신체는 증상을 통해 ‘말하기’를 시도하고 환자가 이를 적절한 언어로서 표현하면, 의사는 이를 적합하게 인지하고 정확한 병명으로 진단하며 치료하게 된다. 푸코의 논의를 참고할 때, 『퇴원』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언어에 의한 신체의 공간화를 우회적으로 거부하거나, 이를 전도된 형태로 되돌려준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작품에서 환

14 널리 알려진대로 『당신들의 천국』에는 한센병이 주요 모티프로 등장하고 있으나,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그리 생산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고자 한다.

15 이청준, 『퇴원』, 『사상계』, 1965.12, 288면.

16 위의 글, 288면.

자는 자신의 신체 증상이 언어를 통해 규정되는 것을 거부하며 자신의 증상을 숨긴다. “환부 없는 아픔”을 이야기했던 『병신과 머저리』(『창작과비평』, 1966 가을)의 ‘나’도 『퇴원』의 인물의 연장선에 서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청준이 인물들의 이러한 행동을 형상화하는 의도를 좀 더 곱씹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환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은 질병의 원인 분석이 불가능한 것과 나아가 치유 또한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청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임상적인 그 어떤 노력도 무화시킨다는 점에서, 그들은 임상의학의 탄생과 더불어 확립된 의료 체계, 나아가 지식 체계가 근거한 근대의 인식 체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또한 주체가 환부의 분석과 치료 모두를 거부하고 특정 증상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이를 죽음충동까지 밀고 나간다는 점에서 ‘윤리적 태도’¹⁷와도 연결된다.

이러한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언어가 일종의 ‘주석달기’¹⁸가 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이청준은 일종의 상징체계인 ‘언어’로 분석되지 않는 ‘잉여’들을 폐기하는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나아가 이것은 명징한 언어의 ‘상징체계’로 작동하고 있던 당시 한국 사회의 권력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신체에 하나의 ‘이름’(病名)을 붙이는 것은, 수많은 증상과 기표들을 하나의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누빔점’¹⁹으로 고정하는 것과

17 여기서 윤리란 자신의 욕망과 관련해선 한치의 양보도 없으며, 자신의 향유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지젝의 논의에서 의미를 지닌다.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2003, 200~206면 참조.

18 “‘주석달기’란 솔직히 말해 언어가 하고 싶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답론에게 되물어보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리하여 ‘주석 달기’는 발화된 것의 깊은 의미를 찾으려 몸부림치며 아직 말해지지 않은 것을 되풀이하려고 했으니, 그 까닭은 하나의 고정된 의미 부여를 통해 진리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붙잡혀 있는 언어, 낡은 시대의 언어 침묵하고 있는 언어를 더 자유롭게 하고 더 현대적인 감각에 맞고 수다스럽게 만들려고 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주석 달기’의 본모습이다. 또한 ‘주석 달기’는 기본적으로 기표에 대한 기의의 과잉을 인정해, 언어가 그들 속에 내버려두어 정제되지 못한 사고의 나머지를 — 그러나 이 나머지 또한 사고의 본체가 아닌가! — 을 내팽개쳐온 것이다.” 미셸 푸코, 앞의 책, 23면.

19 ‘누빔’은 총체화를 수행하며, 이 과정을 통해 자유롭게 부유하는 이데올로기의 요소들을 고정시키게 된다. 다시 말해 누빔을 통해 그 요소들은 의미의 구조화된 네트워크의 일부가 된다.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2003, 156면.

그 메커니즘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작가의 이러한 문제 의식은 『퇴원』의 아래 인용문을 통해 매우 적실하게 지적되고 있다.

모든 요구는 언어가 허용될 수 있는 한계 이전의 것이다.

펜토마임……

그렇게도 나의 머리에 맴돌기만 하던 창문의 이미지가 번득 머리에 떠올랐다. 그렇게 안타까와 했던 것은 어떤 경험의 회상이 아니라, 강한 이미지로 받아들여진 이 단어의 개념에 불과했던 것이다.

펜토마임……. ‘무언극’이라는 번역어로는 도시 실감이 나지 않는 말이다. 그것은 이 단어에 세 번이나 겹친 순음(唇音)의 작용도 있겠지만, 마지막 ‘ㅁ’받침이 단어의 뜻과 더욱 잘 부합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았다. 발음 자체가 이미 그 내용이 지니는 무거운 침묵을 강요하고 있었다. 마지막 음절에서 자동적으로 입을 폐쇄당하고나서 나는 몇 번이고 이 단어의 이미지를 실감했고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그 연극의 본질에까지도 어떤 예감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언어가 완전히 소멸된 거기에는 슬프도록 강한 행동의 욕망과 향수만이 꿈틀거렸다. 허나 나에게는 이미 그 욕망마저도 죽어버리고 없는 것 같다. 완전한 자기 망각. 그렇게 나는 시체처럼 여기 병실에 누워 있는 것이다.²⁰

작중 화자는 언어가 소멸된 곳에 행동의 욕망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즉 언어로 규정하기를 유보하면서 주체는 자신의 욕망을 다른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주체는 유기체적 관계를 상실한 기계처럼, 신체를 주관하는 주체와 분리된 상태로 자신을 드러낸다.

히스테리자들은 신체의 증상들을 통해 무의식 속에 숨겨진 욕망을 드러낸다. 이들은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무의식의 차원에서 규제하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신체적 증상으로 드러낸다. 지젝은 자크 알랭의 논의를 참조하면서 ‘히스테리자들은 이중의 거부를 행한다’고 지적했다. 히스테리자들은

20 이청준, 『퇴원』, 『사상계』, 1965.12, 290면.

정신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며 생물학적 차원의 신체 그 자체를 거부한다. 이들은 안녕, 생존, 재생산 등 신체의 생물학적 관심사를 거스르는 무의식의 충동들과 욕망들이 신체라는 매개체를 통해 스스로 드러내도록 한다.²¹ 물론 프로이트의 논의에 따르면 분석가가 히스테리자들의 억압된 무의식과 욕망을 읽어서 언어로 표현될 수 없었던 것을 언어로 나타낸다면, 증상은 호전되거나 완치되었다. 이 점에서 이청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히스테리자들과 갈라진다. 이청준 작품 속의 인물들은 원칙적으로 증상의 진단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언어화를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존재이며 이 점에서 언어의 불가능성이라는 점을 견지하고 있다.

이청준은 언어 자체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무척 확고한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점은 그가 작품을 창작하던 시기와의 관련 속에서 보다 깊이 독해할 필요가 있다. 그가 활발히 작품을 창작한 시간 중 상당한 기간은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집권했던 군사독재 시기이며, 특히 1972년부터 1979년까지는 ‘유신’ 시기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질병이 등장하는 작품들 역시 거의 이 시기에 창작된다. 주지하듯 유신체제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은 명시적인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성원들의 언로는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²² 언어의 불가능성에 대한 이청준의 확고한 태도는 실제로 언어에 자유가 없었던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다른 작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빈방』은 딸꾹질을 하는 ‘지승호’에 대한 이야기이다. 신문기자인 ‘나’는 같이 방을 쓸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미 내 직장 이야길 듣고 단번에 마음을 정했노라”며²³ 지승호가 찾아온다. 지승호는 ‘나’의 직업이 신문 기자라는 점 때문에 같이 방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좀처럼 멧지 않는 지승호의 딸꾹질을 보면서, 그의 딸꾹질이 일시적인 신체 이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된다. 원래 딸꾹질은 원래 횡격막 및 호흡작용을 보조하는 근육이 갑

21 슬라보예 지젝, 김지훈·박제철·이성민 역, 『신체없는 기관』, 도서출판b, 2006, 183면.

22 안병욱 외, 『유신과 반유신』, 선인, 2005 참조.

23 이청준, 『빈방』, 『문예중앙』, 1979 여름, 47면.

자기 경련성 수축을 일으켜 성문(聲門)이 열려 소리를 내는 일시적인 증상이지 만, 지승호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신체 증상이 아니었다.

“수도 없이 찾아다녔지요. 제 육신에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해 준 곳도 물론 병원 에서였구요.” (…중략…) “증세는 있는데, 육신엔 이상이 없다— 그렇담 그 원인이 육 신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건가요?” “병원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더군요. 증세의 뿌리가 제 육신보다도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듯싶다구요. 이를테면 무슨 급 격한 마음의 충격이나 과도한 긴장감 같은 것 때문일지 모른다구요.”²⁴

지승호는 스스로의 딸꾹질을 두고 “마음의 충격이나 과도한 긴장감”, 즉 ‘심인성(心因性)’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 마음의 원인을 찾아서 지승호를 치 료하고 ‘정상’의 상태로 돌리겠다고 마음먹는다. ‘나’는 “하루 이틀 유심히 증 세를 살펴 보”다가, “지승호 씨는 말을 하고 있을 때도 딸꾹질을 안”한다는 사 실을 알아낸다.²⁵ 그리고 ‘나’는 지승호로 하여금 그 증상의 원인을 말하게 해 서 그의 딸꾹질을 치료하겠다는 결심을 굳힌다. 증상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스스로 발화하게 함으로 증상을 해소하는 방식은 프로이트 계열의 정 신분석에서 흔히 사용되는 치료방법이다.

물론 “이놈의 병은 도대체 치료 방법이 없는 병이에요. 다만 끝없이 말을 지껄여서 잠깐씩 불편을 이겨내는 길밖에는 ……”²⁶이라는 언급에서 보듯 지 승호가 말을 할 때 딸꾹질 증세가 잠시나마 멈춘다는 점에서 그에게 ‘말’과 ‘딸꾹질’이 동격(同格)임을 알 수 있다. 말은 어떤 진실을 드러내고자하는 욕망 의 산물이다. 말을 통해 욕망이 다소나마 충족될 때야 딸꾹질이 멈춘다는 것 은 그의 딸꾹질이 진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욕망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 다. 지승호 본인이 증상의 원인을 이미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말을 통해 증상을 잠깐이나마 완화한다는 점에서, 이청준의 인물들을 프로이트의 ‘카타

24 위의 글, 54면.

25 위의 글, 53면.

26 위의 글, 56면.

르시스' 요법으로 증상을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프로이트에게 증상이란 무의식의 차원에 깊숙이 가라앉아 환자 본인은 인식하지 못하며 따라서 분석자의 분석을 통해서만 의식 세계에서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지승호 본인은 이미 무의식이 아닌 의식의 차원에서 증상의 원인을 알고 있다. 여기서 신문기자라는 '나의' 직업을 보고 일부러 찾아왔다는 지승호의 언급에 다시금 주목해야 한다. 지승호의 생각에 신문기자란 진실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며, 딸꾹질 증상 없이도 말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나는 그러한 "작자의 그 이야기 그릇이 텅텅 비어 버리게 하여 더 이상 말을 할 것이 없게 만드는"것으로 "이야기의 뿌리를 뽑음"으로써 지승호의 딸꾹질 증세를 고쳐보겠다고 마음먹지만,²⁷ 지승호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는데서 알 수 있듯 그 시도는 실패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청준은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증세를 개인의 차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증상의 원인을 사회적인 무의식 차원에 둔다는 점에서 프로이트적 해석과 치유와 갈라진다. 프로이트 이론대로라면 억압되었던 무의식을 발화하면 증상이 해소되어야 하지만, 지승호는 증상의 원인이 되는 사건에 대해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만 딸꾹질 증세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선생님께선 좀 서두르신 편이었지요. 그래 전 처음부터 이선생께 일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었지요. 이선생께서 정절 위해 주신다면 그게 오히려 해로움이 될 거라고요"²⁸라는 언급에서처럼 오히려 지승호는 '나의' 행동이 성급했음을 지적한다. 이처럼 지승호는 임상 의학의 진단과 치료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제기는 단지 언어로 포섭되지 않는 '잉여'의 측면에 대한 분석을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지승호를 비롯한 이청준 소설 속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시대의 억압과 결부되어 있음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²⁹ 지승호가 멈추지 않은 딸꾹질 증세를 가지게 된 것은 노동조합의 설립

27 위의 글, 57~59면.

28 위의 글, 82면.

29 이 같은 병리나 증후의 깊은 뿌리는 가족 관계나 유년기 및 과거의 불안 경험에서 연유한

을 막으려는 회사에 저항하던 여공들이 알몸으로 소방 호수의 물을 맞아내는 장면을 본 후이다.

“제가 나서서 협조는 않더라도 소동의 전말이 어떻게 해서든지 보도가 되어져 나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때 그 기자 양반들도 그만한 취재는 해갔던 셈이구요. 회사에선 일체 책임을 물으려 하지 않았지만, 기자 양반들이 그렇게 자꾸 회사를 드나들던 무렵, 공장 애들 몇몇이 제물에 회살 나가고 말았거든요.”

(…중략…)

“관계 기사가 나오질 않았단 말입니까?”³⁰

인용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작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는 딸꾹질 증상이 발생하지 않다가, 이후에야 증상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승호는 회사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여공들의 저항 행위와 그 진상이 신문을 비롯한 미디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랐다. 그러나 그는 많은 취재인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건의 전모가 어느 곳에도 보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회사와 직공 노조 사이에 긴 불안한 위치에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던 그는 진실에 침묵하는 언론의 행태에 깊은 충격을 받게 된다. 딸꾹질 증상이 생겨난 것도 그 시점부터이다.

1979년에 발표된 『빈방』의 이러한 서사는 1977년과 1978년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킨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 투쟁 장면들을 연상하게 한다. 작품 속에서는 물벼락을 맞은 것으로 그려진 여성 노동자들은 사실 ‘똥물’ 세례를 맞았다. 126명의 여성노동자들은 동일방직에서 강제로 해고되었으며, 이에 항의하며 13일 동안 단식투쟁 등의 투쟁을 전개하지만 결국 3명이 구속되고 9명이 입건되는 결과를 남겼다.³¹

것이지만, 이것은 다시 사회적인 불안으로 맥락 관계가 이어지고 확대된다. 다시 말하자면 상처 입은 개인적인 전기나 시대나 사회의 전기로 문제가 확대 구현되는 것이다. 그의 인물들은 전쟁의 공포, 정치적 금제, 현실로 존재하는 경제적·사회적 갈등과, 고통으로 이어지는 우리 사회와 역사의 환기를 위한 희생양들이었다. 이재선, 앞의 책, 292면.

30 이청준, 『빈방』, 『문예중앙』, 1979, 79면.

한데 활자가 하나도 박혀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텅 빈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문득 그 신문지 위로 어른어른 떠올라 오는 정경이 있었어요. 딸꾹 물벼락을 뒤집어 쓴 그 계집아이들의 추운 알몸들이었지요. 딸꾹……. 전 갑자기 온몸에 한기가 느껴져 오더군요. 그리고 느닷없이 그 딸꾹질이 솟기 시작했어요.

언론은 여성 노동자에게 가해진 엄청난 폭력과 탄압을 취재하고도 침묵하는데, 이것은 실제 역사적인 사실과도 부합한다.³² 언론의 침묵은 유신 정권의 언론 탄압과는 또 다른 층위에서 진실이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행위였다.³³ 그렇다면 지승호에게 딸꾹질이란 활자화 되지 못한 채 묻혀 버린 여공들이 말하고자 했던 대화체적인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면서, 언론의 침묵을 대신하는 ‘말’ 언어의 행위인 것이다. 또한 지승호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딸꾹질은 이러한 문제적 상황을 증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현재형으로 의미화하는 행위이며, 지승호의 입장에서는 가장 적극적인 시도인 것이다.

신체의 신경증적 증상은 경직된 인격성과 상징계(감각-운동 도식)로부터 이탈하려는 뇌의 작동이자 (그에 상응하는) 신체의 반응이다. 신경증적인 신체가 일상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할 때 제의적이거나 연극적인 신체의 태도가 나타난다. 신체의 태도란 상징계를 해체하는 사유를 삶 속으로 투기하는 표현의 메커니즘이다. 즉 그것은 감각-운동 도식(상징계) 및 신체습관 기억(아비투스)에 예측된 감정이나 행동이 아니라, 순수기억의 잠재태와 무의식을 작동시키는 뇌의 회로에 근거한 신체적 표현이다. 잠재태와 무의식의 표현으로서의 ‘신체의 태도’는 연극적 ‘게스투스’에 접근한다.³⁴ 지승호 역시 ‘딸꾹질’이

31 안병욱 외, 앞의 책, 41~42면.

32 강준만, 「한국 현대사의 한 장면 2—동일방직 똥물 사건(1978년)」, 『인물과 사상』 54, 2002, 173~179면.

33 유신체제 언론 양상과 관련해서는 김서중, 「유신체제 권력과 언론」, 『유신과 반유신』, 161~216면, 참조. 강준만은 앞의 글에서 ‘여성’과 ‘노동자’라는 위치가 겹쳐진 데서 이같은 상황의 이유를 찾기도 한다.

34 나병철, 『영화와 소설의 시점과 이미지』, 소명출판, 2009, 431면.

라는 증상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적어도 행위의 측면에서) ‘윤리적’ 태도를 고수한다.

결국 실제 사회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의 성급한 판단에 의해 유도된 지승호의 고백은 그의 증상을 절대 완화할 수 없다. 또한 다른 한 편에서 신문기자인 ‘나’의 한계를 환기하며, 진실을 발화한다는 것에 관한 이청준의 복합적인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지승호는 신문기자라는 직업을 보고 ‘나’와의 동거를 결정하지만, ‘나’는 지승호의 억압된 말의 단면만을 성급하게 끌어냈을 뿐이다. 일종의 ‘희생양’이라 할 수 있는 지승호는 자신의 ‘희생’ 행위를 지속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고 그 존재 자체로 공고한 사회에 균열의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³⁵ 일반적인 희생양들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청준이 그러한 균열에 관해 설부른 가능성을 이야기하거나 희망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 문제는 지승호가 말했듯 시간을 두고 조금씩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이청준 소설이 가지는 신중함과 복합적인 문제의식이 놓인다.

3. 분석가의 욕망과 ‘윤리적’ 증상

「치질과 자존심」³⁶의 인물 또한 자신에게 내려진 언어화된 진단 이후에도 증상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윤리적’ 태도를 보인다. 치질을 치료하는 외과 의사인 ‘가수로(賈壽路)’는 치질 환자들이 점점 증가하는 상황 앞에서, 근본적으로 치질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으로 직립 보행을 포기하고 네 발로 걷는 것

35 믿음이란 어떤 문턱을 넘어선 단계에서 희생양 효과는 박해자와 희생양의 관계를 전복하게 된다. 르네 지라르, 김진식 역, 『희생양』, 민음사, 1998, 77면.

36 ‘우화소설’이라는 독특한 부제가 달린 작품집으로, 이 작품 외에도 우화나 동화로도 읽힐 수 있을만한 작품들이 실려 있다. 작가의 장르인식과 관련해 주목해볼 부분이다.

을 제안한다. 가수로의 결심은 매우 확고하며 그는 “인류애의 숭엄한 사명감을 가지고”³⁷ 이를 관철하려 한다. 가수로는 “사람의 직업과 그 직업으로 인한 하향성 복압의 작용”³⁸을 치질의 원인으로 진단하며, 하향성 복압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지보행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가수로 쓰는 그런 덴 도대체 아랑곳을 안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치질을 퇴치하는 것이 그의 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 있었다. 그의 불타는 사명감은 그런 사소한 장애 따위엔 절대로 구애를 받을 수가 없었다. 그는 어떤 수단 방법을 다해서라도 치질이란 질병을 퇴치해야 하였다.

원칙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사소한 장애거리로 원칙을 바꾸고 물러설 수는 없었다. 원칙을 고수해 나가는 데서 파생하는 문제들은 그의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 문제들과 상관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과업이었다. 가옥의 천정을 낮춘다든가, 축구경기의 규칙을 바꾸는 일은 짐을 짓고 축구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었다. 가수로 써로선 다만 자신의 원칙에 충실하여 치질 박멸의 대업만 달성하면 그만이었다.³⁹

가수로는 자신의 원칙을 앞세운 뒤 융통성 없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원칙을 관철하고자 한다. 그러던 와중에 “이름이 썩 알려진 언어학자”이자 예전부터 치질을 앓아온 환자가 가수로를 찾아온다. 언어학자는 몇 달째 치료를 받아도 증세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으며, 증세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가수로와 환자는 사람들이 왜 사지 보행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관해 토론한다. 가장 수치스러운 곳이 어디냐는 언어학자의 질문에 가수로는 쉽게 ‘항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는 “부끄러움은 원래 더럽고 추한 것을 내보임에 있”다고 하며,⁴⁰ 생식기는 “죄를 지을 때나 그것은 비로소 더럽고 추해지며

37 이청준, 『치질과 자존심』, 『치질과 자존심』, 문장, 1980, 13면.

38 위의 글, 14면.

39 위의 글, 16~17면.

40 위의 글, 27면.

수치스러운 곳”이지만,⁴¹ 이에 비해 항문은 “더러움을 태생으로 지니고 난” 곳으로 부끄러움의 대상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언어학자는 가수로의 답변에 동의를 표하면서 항문을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수치심과 관련되며, 그것이 자존심과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말하자면 우리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싶어 하는 마음이 곧 자기를 높이는 마음, 즉 자존심을 낳는 거지요. 다시 말해 우리가 자존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름아닌 자기 부끄러움을 감추려는 마음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

“사실은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곳을 감추기 위해 사지보행을 단념하게 되었고, 그대신 그 소중한 자존심과 치질이란 질병의 험한 고통을 동시에 얻어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쩔습니까.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그 질병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꾸로 다시 사지보행으로 돌아가야겠습니까 그 치질이란 질병을 물리치기 위해 사람의 자존심을 다시 버려야 하겠느냐 말입니다.”⁴²

가수로의 말대로 사지보행을 하면 치질에서는 자유로워지지만, 그것은 수치를 드러내는 일이 된다. 따라서 언어학자에게 치질이란 증상은 자존심을 가지고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신체 표현이 된다. 나아가 치질 증상이 발병하는 항문은 물질을 밖으로 뱉어낸다는 측면에서 입의 기능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⁴³ 치질로 배설이 용이하지 않는 개인의 상황은 입을 통해 자유로운 말을 발화하지 못한 시대적 상황과 유사성이 있다. 또한 치질을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이 언어학자라는 점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짐작건대 언어학자는 ‘말’에 관해 자유롭게 발언하고 연구할 수 없을 상황일 것이며,

41 위의 글, 27 면.

42 위의 글, 33면.

43 항문은 매일 나오는 소화쓰레기의 출구일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의 입구이기도 하다. 항문 부위의 염증이든, 열과 통증을 막기 위한 것이든, 입을 통해 먹는 약의 효과가 위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칠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 루돌프 센다, 박계수 역, 『욕망하는 몸』, 뿌리와 이파리, 2007, 328~329면.

그 상황에서 치질을 심하게 알고 있는 것이다. 앞서 분석했듯, 치질을 앓는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면, 말을 잃은 시대 혹은 침묵을 강요하는 시대에 작가는 치질을 앓는 작중 인물들을 통해 진실을 신체의 증상으로 ‘말’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작품 속에서 갑자기 치질 환자가 당대에 급증했다는 상황과도 연결할 수 있다.

가수로가 언어학자의 해명을 듣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선 그 자존심이란 것부터 이 세상에서 깡그리 박멸을 해야겠군”이라는 생각을 하는데,⁴⁴ 이것은 작품이 쓰여졌던 당대 시기와 관련하여 작가의 문제의식을 보다 선명히 드러낸다. 문제의 핵심인 언어학자의 증상의 언어를 제대로 해독해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존심을 없애겠다는 가수로의 태도는, 자유를 제한하고 자존심을 지킬 수 없게 한 당대의 한국 사회적 맥락을 환기하기 때문이다. 가수로의 행위와 사고는 당대 한국의 권력 집단에 의해 행해진 일련의 조치와 사태들에 대한 알레고리로 독해할 수 있다.

상징계 내의 언어로 포섭되거나 해석되지 않고 임상의학적 분석자의 욕망을 무화시키는, 특정 증상을 지닌 존재는 『조만득씨』에서도 발견된다. 과대망상증이라는 병명으로 병원에 실려온 조만득은 치료자인 민박사에 의해 진단되고 ‘고쳐져야 하는’ 병자로 간주된다. 이는 앞서 『빈방』에서의 ‘나의 태도와 흡사하다.

조만득 씨는 비록 자신의 모순을 시인해보이긴 했어도 그 모순의 원인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속으로는 아직도 자신의 이상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조만득 씨였다. 그에게서 그 모순의 원인을 캐내고 갈등의 뿌리를 뽑아주어야 하였다. 조만득 씨에게 스스로 그 원인을 찾아내게 하지 않고는, 그리하여 그 모순과 갈등을 스스로 해소해 주지 않고는 그의 웃음이나 돈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 줄 수가 없었다.⁴⁵

민박사는 증상을 찾아내어 이를 해소함으로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일반적

44 이청준, 『치질과 자존심』, 『치질과 자존심』, 문장, 1980, 34면.

45 이청준, 『조만득씨』, 『세계의 문학』, 1980, 36면.

인 의사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민박사의 치료 행위는 결국 조만득에게 웃음을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민박사는 조만득 씨를 치료한다는 목적 하에 “그를 고쳐준다는 건 결국 그가 견디지 못해 도망쳐 나온 무거운 현실 가운데 다시 그의 짐을 지워 쫓아 보낸다는 것인데 ……”라고 결론을 내리고,⁴⁶ 완치 진단으로 조만득을 퇴원 처리한다. 그러나 완치로 진단된 조만득이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자이자 환자가 되는 결말을 통해, 민박사의 분석과 진단에 큰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다. 이는 조만득의 행위에 대한 민박사의 진단이 너무 단순한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조만득이 자신의 증세를 통해 얘기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민박사가 제대로 독해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민박사는 “정직한 현실의 짐”을 지우게 하는 것으로 조만득의 병을 치료하려 하였다. 그러나 조만득의 증상에 관한 민박사의 진단이 틀렸음은 조만득의 범죄행위가 드러낸다. 민박사는 조만득의 증상을 분석가인 의사의 입장이 반영된 언어로만 해석하였고, 조만득씨 증상이 지닌 언어적 측면, 조만득이 유지하고자 했던 ‘환상’의 차원을 읽어내지 못한 것이다.⁴⁷

4. 기괴한 신체를 통한 ‘보여주기’와 담론의 무의미성

작품 속 인물의 증상을 사회적 맥락과 연결시켜 비판했던 이청준은 한편으로는 유기체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사물화 된 신체를 통해 앞서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기괴하거나 비현실적으로만 보이는 작품 속 신체는 ‘조화로운 유기체’가 깨어진 장면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면서 작가가

46 위의 글, 42면.

47 이 점에서 민박사보다는 윤간호사가 오히려 조만득에 대한 보다 합당한 진단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윤간호사의 위치에 관해서는 김남혁, 『이청준 소설연구—자유의 의미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2013, 88~97면 참조.

몸 담고 있는 사회의 부조화와 불구성을 알레고리화한다. 이는 그로테스크한 신체 이미지를 사용, 전후 실존주의 사조를 작품에서 구현했던 장용학을 비롯한 앞선 시기 작가들의 작품의식과도 비교하여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다.

『마기의 죽음』은 알레고리화된 신체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독특한 작품이다. 이청준은 이 작품에서 인간의 신체를 알레고리화된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인물의 신체에 대한 서술 자체가 인물의 성격과 상황을 단적이고도 총체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미래 사회 인류인 ‘마기’라는 인물이 화자이자 주동인물로, 마기를 포함한 작품 속 미래 인류는 현재의 인류와 다른 체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마치 그녀는 몸 전체가 그 쾌락의 새암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았다. 상관 없는 일이다. 우리는 그 작은 머리로도 이미 생각할 것이 없고, 그 좁은 창자로도 한두 알의 정체(錠劑)영양분은 흡수할 수 있으며, 가는 다리는 도대체 몸을 운반할 일이 없지만, 언제나 쾌락만을 품어 내고 있는 그 새암은 튼튼하고 깊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⁴⁸

인용문은 마기의 아내인 ‘마진’에 대한 서술이다. 마진은 작은 머리와 빈약한 몸통과 사지를 가지고 있지만, 성적 기능을 담당하는 둔부만은 기형적으로 발달한 체형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머리가 상징하는 비판의식이나 지식의 측면이 거의 퇴화했으며 이에 반해 성적 기능만 과도하게 발달한 기형적인 상태이다. 마기가 가진 기괴한 신체는 가면극에서 가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가면극에서의 가면은 배우가 맡은 인물의 캐릭터를 연기가 아닌 시각적인 요소로 단적으로 형상화하는 장치인 것이다. 또한 아내 마진과의 대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일정 수준 이상의 대화도 불가능하다. 비판 의식 없이 향락에만 몰두한 이들의 모습은, 작품이 창작된 당시 한국의 권력집단이 요청하였던 ‘국민’의 모습과도 통

48 이청준, 『마기의 죽음』, 『현대문학』, 1966.10, 177면.

하는 바가 있다. 이는 ‘마기’가 묘사하는 ‘전 인류’, 곧 실제 작품이 창작된 1960 년대의 인류에 대한 아래의 묘사와 비교할 때 그 의미가 두드러진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니 자세히 볼 것도 없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달랐다. 우선 그들의 생김새만 해도 그렇다. 곳곳에 사진과 그림으로 끼여 있는 그 사람들의 형상을 보면 지금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머리는 적어도 신장의 십분의 일 정도의 크기였고 배는 훨씬 큰 대신, 우리에게 있어서 신체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엉덩이, 그 쾌락의 새암 부분은 형편없이 빈약했다. 그리고 다리 또한 상상도 못할 만큼 길고 튼튼해서 우리의 그것보다 세 배는 더해 보였다.⁴⁹

마기 시대의 ‘현 인류’와 ‘전 인류’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조건 뿐 아니라 정신의 상황과 사회적 의미까지 논의가 된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마기는 ‘전 인류’를 더 큰 머리와 튼튼한 다리를 지닌 존재로 파악하면서, ‘현 인류’에게 결여된 지식을 포함한 정신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이 가능한 존재로 이해한다. 이청준은 분절된 신체의 부분이 가진 특징에 관한 가시적인 묘사를 통해, 인물의 총체적 상황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⁵⁰

이 지점에서 “텍스트가 우화적 공간을 서사적 배경으로 택할 때 주제가 분명해지는 반면, 그 구조 내에서 주체가 가지는 경험의 자리는 지워진다”⁵¹라는 한 연구자의 지적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개념적 추상성으로 구축된 이중서사의 형식”이 알레고리 구조이며,⁵² “한 대상의 속성을 지시하고, 지시된 대상은 실재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기호로서 작용하게 된다”고 할 때,⁵³ 알레고리를 선택한 소설은 비구체성이나 추상화의 오류로부터 자유

49 위의 글, 179~180면.

50 이러한 형상화 방식은 발터 벤야민이 비애극의 이미지 중 꼬리를 문 뱀을 통해 시간성에 대한 총체적 설명을 대신하는 것을 환기한다. 발터 벤야민, 앞의 책, 222면.

51 이현석, 『이청준 소설의 서사시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7, 49면. 초기 이중구조 소설들에서 보이던 주체의 불안한 내면을 대체하는 것은 해석되어야 할 현실 속 문제 지점들이다.

52 T. 토도로프, 이기우 역, 『상징의 이론』, 한국문화사, 1995, 272면.

53 위의 책, 272면.

롭지 못할 여지가 있다. 물론 이 작품 또한 이러한 알레고리의 일반적인 약점에 관해 충분한 해명을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이 작품에 등장하는 몇 가지 지점들은 1960년대 당대의 맥락 뿐 아니라, 보다 확장된 범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책’에 관한 작가의 서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기의 세대는 ‘책을’ 빼앗긴 세대’로 규정되는데, 조상들에 의해 전해 내려오던 ‘책’을 입수한 뒤 마기는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 작품에 ‘책’은 잃어버린 말, 나아가 ‘언어’를 의미하며, 작품에서 언어를 대체하는 것은 덧씌워지고 재구성된 ‘신체’이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마기의 신체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기는 전 시대의 책을 통해 자신이 사는 시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마기는 자신이 가진 병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명명한다. 마기에게 자유란 말의 자유 뿐 아니라 생각의 자유를 포괄하며, 나아가 “규제로부터 자유를 추리할 수 있었다”로 고백하기에 이른다. 이때 마기의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은 ‘전 인류’의 체형을 닮아가며, 작은 머리가 점점 커지는 것으로 묘사된다.

나의 조상들은 이상한 병으로 일찍 죽어 가곤 했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머리가 조금씩 커지는 몸은 반대로 시들시들 말라 가서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진 머리를 지탱할 수조차 없게 괴상한 형상이 되어 가지고는 드디어 숨을 거뒀버리곤 했다. 그리고 이윽고는 나의 머리통도 그들처럼 서서히 보기 흉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⁵⁴

어머니는 마기의 이 같은 변화를 보고 걱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증세가 나타나면 “검은 제복”⁵⁵들이 찾아오기 때문이었다. ‘혁명군’은 체형이 ‘전 인류’처럼 변한 이들을 불온분자로 지정하고 콘크리트 벌판으로 추방한다. 이 작품에서 신체의 변화는 비판의식을 가지는 것과 동격으로 표현된다. 검은 제복을 입은 혁명군들은 결국 마기를 체포하게 된다.

54 이청준, 『마기의 죽음』, 『현대문학』, 1966.10, 176면.

55 위의 글, 184면.

혁명군은 결국 모든 인간을 지배할 규제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어야 했을 것이다. 그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었다. 규제의 방법이 육신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으로 옮겨진 것은 지극히 당연했다.

그들은 다 같이 우리의 육신과 정신을 함께 규제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육신을 묶어 놓은 자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정신까지도 묶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사실 그들이 육신을 묶어 놓은 인간에게 부단히 가한 불안과 공포는 간혹 그 사람의 정신을 그들이 바라는 대로 바꿀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미련했다. 좀 더 무결한 방법을 몰랐던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은 그것을 훌륭히 해 내고 있지 않은가. 콘크리트의 벌판은 우리의 사고를 정지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노력까지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다.⁵⁶

‘전 인류’의 혁명군은 육체 뿐 아니라 정신을 함께 지배하고 규제하고 싶어 했지만 그것은 완벽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인 마기 시대의 권력자들은 비판적 사고를 지닌 이들을 콘크리트 벌판으로 추방함으로써 “신체적인 노력까지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신체와 사고를 완전히 통제하고자 한다. 마기는 ‘전 인류가’ 살았던 1960년대를 “모든 육신을 포박한” 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당대를 “육신에 무한한 공간을 주면서 그 정신을 마비시키는” 시대이자 “절대 공간으로 완전히 차단”된 시대로 대별하여 이해한다. 두 시대 모두 방법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억압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마기의 태도에서 볼 수 있듯, 그는 ‘말’ 즉 ‘언어’를 빼앗긴 자신의 시대를 보다 심각한 문제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다. 실제로 언어를 잃고 육체로나마 말하기를 시도하던 마기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마기의 시대는 결국 어떤 저항의 표현조차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기인 것이다.

이청준은 다른 작품에서는 억압을 형상화하지만, 그 억압에 의한 완벽한 통제의 불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하였지만, 『마기의 죽음』에서는 디스토피아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인 전망을 전면화하고 있다. 알레고리를 통해 부정적

56 위의 글, 188면.

인 전망을 압도적으로 형상화하면서, 이청준은 신체-언어의 연결고리를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⁵⁷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신동아』, 1972.9)은 우화를 연상하게 하는 작품이다. 소설은 ‘허원’이 “어느 날 아침 문득 그의 배꼽을 잃어버”린 것으로 시작된다.⁵⁸ 허원은 자신의 배꼽이 사라진 후, 갑자기 전사회적으로 배꼽에 대한 논의가 성행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처럼 배꼽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그도 그럴 것이 다들 왜인지 상체의 노출을 피하고 있었으며, 다른 신체부위가 아니라 유독 배꼽에 대해서만 『주간 배꼽』이라는 잡지가 창간되는 등 담론이 과잉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배꼽은 신체 내 존재하지만, 특별한 기능을 하지는 않고, 특별히 노출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보일 기회도 없는 부위이다. 신체에서 일종의 ‘잉여’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허원의 경우에서 보듯 어느 날 배꼽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배꼽을 둘러싼 의미망과 사회적 맥락은 전혀 달라지며, 배꼽은 ‘잉여’가 아니라 ‘전부’가 된다. 물론 이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어떤 상황을 알레고리화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배꼽’은 작품 내에서 그 정체는 모호한 채, 배꼽을 둘러싼 담론만을 형성시킨다는 점에서 히치콕 영화의 ‘맥거핀’처럼 보이기도 하지만,⁵⁹ 동시에 배꼽을 둘러싸

57 텍스트에서 주체가 추상적인 개념관계 위에서 비유적 기표의 위치에 놓임으로 해서 개인을 억압하는 사회라는 주체는 보다 선명해졌으며 그에 따라 그가 사회를 보는 시선은 개별적 경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와 함께 주체 자신을 어떤 객관적 실제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게 되는데, 그것은 항상 억압받는 존재의 내면을 형상화하는 것에서 사회 현실이라는 상징계적 질서 속에 놓인 인물들에 대해 외부의 시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변화를 의미한다. 이현식, 앞의 글, 51면.

58 이청준, 『배꼽을 주제로 한 變奏曲』, 『신동아』, 1972.9, 428면. 이 작품에 관해 필자는 『항시적 ‘예외상태’에 대응하는 주체의 전략』, 『한민족문화연구』 45, 한민족문화학회, 2014에서 논의한 바 있다.

59 ‘맥거핀’이라는 개념은 히치콕에서 유래한다. 맥거핀은 오직 이야기를 가동시키고 줄거리에 전환점을 주기 위해 필요할 뿐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뜻도 없는 대상물이다. 이런 대상물은 히치콕의 영화 이외에도 다른 영화들이나 추리소설 등에서도 종종 사용된다. 요컨대 그 자체로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맥거핀이다. 그러므로 맥거핀은 라캉이 대상 a라고 부르는 것의 가장 순수한 사례이다. 김현강, 『슬라보예 지젝』, 이룸, 2008, 132~133면.

고 발생한 상황들이나, 이 상황을 만든 프레임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

작품 속에서 어떤 이들은 “배꼽이 사라지는 이번이 생기더라도 우리들에겐 여전히 생활이라는 게 남아 있게 된다. 사라져버린 배꼽을 위해서 그러한 가상의 현실을 위해서 헛된 토론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이면에 우리를 순응시켜 우리의 생활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⁶⁰ 하지만 “무성한 배꼽논쟁은 그것이 어떤 형식을 취하든 결국은 잃어버린 배꼽을 되찾으려는 소망과 노력의 표현이었다”라는 허원의 진술에서 보듯,⁶¹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꼽에 대한 논의를 과잉생산하며 “새 배꼽 찾기” 운동을 벌이고, 나아가 『주간 배꼽』에서 가장 이상적인 배꼽을 선발하는 회극적인 상황을 낳게 된다. 그러나 배꼽이 사라져 이를 공개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했던 허원은, 자신을 제외한 수상자 모두가 만들어진 배꼽을 공개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사회의 전체 구성원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 같은 장면은 우화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감추었던 군중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 작품에서 배꼽은 그야말로 육체에 속한 기관임을 넘어 단독적인 의미를 지니고 담론을 형성하는 어떤 기제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작품에서 드러나듯 그 담론들이란 대단히 현학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무의미한 것들의 연쇄일 뿐이다. 다시 말해 배꼽이라는 기표는 사회구성원들에게 무수한 기의로 기능하지만 정작 그 자체로는 고정된 아무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이것은 실제로 작품의 마지막에서 아무 이유 없이 허원에게 다시 배꼽이 생기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청준은 한 도막의 회극적인 상황을 통해 하나의 담론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사라지는지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한다. 동시에 배꼽은 그 자체로 네거티브 필름처럼 기능하여 그 주변의 담론의 배치를 드러내는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60 이청준, 『배꼽을 주제로 한 變奏曲』, 『신동아』, 1972.9, 437~438면.

61 위의 글, 437면.

5. 나오며

이청준이 창작 활동을 통해 여러 계열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가운데, ‘언어’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문제의식을 갖고 이에 관련한 작품들을 창작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언어가 제 기능을 못하는 1960~1970년대 한국의 ‘유신’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청준은 언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기제를 통해 고발 및 표현의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이러한 이청준의 문제의식은 데뷔작인 『퇴원』에서부터 『마기의 죽음』, 『치질과 자존심』 등 신체 증상이 주요 모티프가 되는 여러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코는 일찍이 근대 사회가 육체를 억압하면서 규율화를 진행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청준은 이러한 근대적 규율화가 이루어진 틀 위에서 신체의 증상을 통해 역으로 억압된 정신과 사유를 드러내고 있다. 푸코에 따르면 임상 의학에서 질병의 증상은 기표-기의를 언어적 관계로 해석되는 것이다. 즉 “증상은 질병이 자신을 드러내는 가장 고귀한 자리”로 해석을 요구하는 언어로 간주할 수 있다. 기괴한 신체를 지닌 인물들과 특정한 증상을 호소하는 인물들을 통해 이청준은 현실을 재현하는 언어의 한계를 형상화하는 한편, 주체와 분절하며 새로운 틈새를 만드는 그로테스크한 신체의 자율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청준은 언어라는 현실상징체계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육체를 통제하려 했던 당대의 권력과 사회, 그리고 상징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수행한다. 물론 이청준은 비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어화를 거부한 신체와 주체가 처한 난점 또한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구성한다. 이청준이 언어의 무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포착하거나 재현할 수 없는 ‘잉여’와 ‘사이’를 끊임없이 논제로 설정하고 있는 점은 유의해서 살필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이청준의 언어와 증상의 문제를 당대 시대적 맥락과 연결하여 보다 면밀하게 고찰하는 것을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ABSTRACT : BETWEEN 'LANGUAGE' AND ANALYSIS, THE 'DOING BODY'; KIM
WOO-YOUNG

Lee Cheong-Jun (1939~2008) is used 'physical(身體)' representation mechanisms, while the language can't perform the functions of accusation and expression. Through to consult the discussion of Foucault, clinical medicine(臨床醫學), Lee effectively reveals, the limits of language to reproduce reality that characters of bizarre body and the main character specific symptoms. Due to this reason, to create a new broken subject and grotesque separate autonomous body features. In the process the fundamental criticism of the system is carried out through community members who tried to control a symbol of contemporary society.

KEYWORDS : LEE CHEONG-JUN, PHYSICAL, LANGUAGE, ALLEGORY, SEGMENTAL,
AUTONOMY, CLINICAL MEDICINE, YUSHIN(THE REVITALIZING REFORM)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이청준, 『퇴원』, 『사상계』, 1965.12.
_____, 『마기의 죽음』, 『현대문학』, 1966.10.
_____, 『배꼽을 주제로 한變奏曲』, 『신동아』, 1972.9.
_____, 『빈방』, 『문예중앙』, 1979 겨울.
_____, 『치질과 자존심』, 『치질과 자존심』, 1980.
_____, 『조만득씨』, 『세계의 문학』, 1980 겨울.

2. 논문 및 단행본

- 김남혁, 『이청준 소설연구—자유의 의미를 중심으로』, 고려대 박사논문, 2013.
김우영, 『항시적 '예외상태'에 대응하는 주체의 전략』, 『한민족문화연구』 45, 한민족문화학회, 2014.
김지혜, 『최인훈, 김승옥, 이청준 소설의 몸 인식과 서사 구조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문, 2010.
김현강, 『슬라보예 지젝』, 이룸, 2008.
나병철, 『영화와 소설의 시점과 이미지』, 소명출판, 2009.
안병욱 외 공저, 『유신과 반유신』, 선인, 2005.
윤성우, 『폴 리퀴르의 철학』, 철학과현실사, 2004.
이수형, 『이청준과 교환의 서사』, 역락, 2013.
이재선, 『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 문학과지성사, 2007.
이현석, 『이청준 소설의 서사시학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7.
최영한,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질병의 의미』 연세대 석사논문, 2009.
한순미, 『가의 언어—이청준 문학 연구』, 푸른역사, 2009.

- 벤야민, 발터, 조만영 역, 『독일 비애극의 원천』, 새물결, 2008.
센다, 루돌프, 박계수 역, 『욕망하는 몸』, 뿌리와 이파리, 2007.

- 지라르, 르네, 김진식 역, 『희생양』, 민음사, 1998.
- 지젝, 슬라보예, 김소영 · 유재희 역, 『빠딱하게 보기』, 시각과 언어, 1995.
- _____, 김지훈 · 박제철 · 이성민 역, 『신체없는 기관』 도서출판b, 2006.
- _____, 이수련 역,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3.
- 토도로프, T., 이기우 역, 『상징의 이론』, 한국문화사, 1995.
- 푸코, 미셸, 홍성민 역, 『임상의학의 탄생』, 이매진, 2006.
- 프로이트, 지그문트, 김미리혜 역, 『히스테리 연구』, 열린책들, 2003.
- 핑크, 브루스, 이성민 역, 『라캉의 주제』, 도서출판b, 2010.

접수: 2014년 1월 31일, 심사완료: 2월 28일, 게재확정: 3월 15일